

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	<h1>보도자료</h1>			
2019년 7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25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19. 7. 25.(목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		
담당과장	이희원 과장(044-203-7250)	담당자	오재철 서기관(044-203-7251)		

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개최

- 열 수송관 등 상반기 발표된 에너지안전 대책 진행상황도 점검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'19.7.25.(목) 14:00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민간 전문위원과 12개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「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」를 개최하여,
 - 상반기 발표된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풍,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에너지 공공기관의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음

◀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개요 ▶

- ◇ 역할 : 가스, 전기, 석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과 제도 심의
- ◇ 위원장 : 세명대 하동명 교수
- ◇ 위원 : 가스, 전기, 석유 등의 안전관리 전문가 20명(임기 2년)
 - * 간사위원 (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)

【상반기 에너지안전 대책 후속조치 진행사항 점검】

- 산업부는 고양저유소 화재('18.10월),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('18.12월), ESS 화재 등 사고에 대응하여 이러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*을 상반기에 각각 발표한 바 있음
 - * 석유·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('19.2.14, 국정현황조정회의 보고)
 - * ESS 안전강화 대책('19.6.11)
 - * 가스배관, 열수송관, 송유관 등 에너지분야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('19. 6.18,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국무회의 보고)

- 금번 「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」에서는 이러한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,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항*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산업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음
 - *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(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),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('22년~)
 - * 송유관·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·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,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 단축(2년→1년)
 - *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및 ESS 운전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등 ESS 시설기준 개정 및 ESS 설비에 정기검사 주기 단축(4년 → 1~2년)

【하반기 주요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】

- 금번 회의에서는 태풍,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전력, 가스,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점검하였던 바, 주요 기관별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음
 - 한전은 송변전설비, 배전설비, 건설현장 등 대형사고 우려 및 취약 전력시설에 대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 - * 산사태 위험 철탑부지 400기, 특별관리 변전소 128개소 등 송변전설비
 - * 지중설비(접속함) 133,760개, 변압기 교체 6,000대, 아파트수전설비 지원 20,792단지 등 배전설비
 - * 송전건설 6개소, 변전건설 3개소, 전력구건설 3개소 등 건설현장
 - 가스공사는 건설현장(배관이설 등) 등 대형사고 우려 및 가스 생산·공급 시설에 대해서 7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 - * 생산분야 6개소, 공급분야(배관이설 등) 46개소 등 건설현장
 - * 생산기지 4개소, 공급관리소 404개소, 주배관 4,857km 등 가스 생산·공급시설
 - 에너지공단은 여름철 풍수해(태풍, 폭우 등) 재난에 대비하여 2018년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취약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7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운영중임

- * '18년 사고 발생(8건) 현장 및 설비 가동기간 10년 도래 산지(임야) 1MW 미만 태양광 FIT 설비 140개소 등 설비 안전점검 실시('19.7월)
- * 산업부-에공단-지자체 합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운영 중('19.5월~)
- * 보급사업 참여기업, 발전사업자 등 4만여개 기업에 태풍, 호우 대비 문자발송시스템 구축

□ 하동명 위원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은 개선 조치하여 **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**하면서,

- 태풍 등 재난발생시 각 기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하여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

□ 또한,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**석탄공사**에 대해 상반기 중 작업장내 근로자 안전사고가 2차례 발생하는 등 **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점을 들어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 경고**하면서, 향후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오재철 서기관 (☎ 044-203-52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대책 (기관별 보고내용)

공공기관	여름철 안전대책
한국전력공사	○ 송변전설비(철탑부지 400기, 변전소 128개소), 배전설비(지중설비 138,760개, 변압기 교체 6,000대, 아파트 수전설비 지원 20,792단지), 건설현장(송전 6개소, 변전 3개소, 전력구 3개소)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(5.15~10.15)
한국가스공사	○ 건설현장(생산 6개소, 배관이설 등 공급 46개소), 가스 생산·공급시설(생산기지 4개소, 공급관리소 404개소, 주배관 4,857km)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○ 안전점검·진단 전담조직 신설하여 집중 점검 시행(7.8~10.15)
한국석유공사	○ 재해우려지역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미흡사항 정비·보완 ○ 여름철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정비 완료
한국동서발전	○ 시설 정비·보강 실시사업소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전담 T/F(141명) 구성·운영하여 취약시설 정비·보강
한국중부발전	○ 보령 등 5개 발전본부 운영사업소 및 2개 건설사업소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(1차:6.5~6.26, 2차:7.17~25, 3차:9월중) ○ 내외부 전문가 합동 안전 및 기술점검 실시(8월중)
한국서부발전	○ 경영진 현장 특별점검(7.10~17), 본사·사업소 실무자 현장 합동 점검(7.8~7.12), 재난대비 전담 T/F팀 자체점검(7.12~10.15) ○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, 비상연락체계,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
한국남부발전	○ 경영진 현장 특별점검(7.8~7.19) 등 자연재난 취약시설 중점 점검(7월) ○ 태풍 등 재난대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가동 및 사전 비상근무 발령제 실시, 24시간 비상복구반(남전, 제작사, 정비사 등) 운영
한국남동발전	○ 재난안전 대책기간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여름철 재난안전 통합관리 - 시설물 사전점검, 취약개소 발굴 및 개선 조치(3.18~4.30) - 자연재해(집중호우, 태풍, 폭염 등) 재난발생 대응(5.15~10.15)
한국석탄공사	○ 장성, 도계, 화순광업소 등 3개 광업소 안전점검 실시(5.13~6.14) ○ 자연재난 발생시 비상근무 및 야간순찰반 운영, 풍수해 우려시설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 실시
한국에너지공단	○ '18년 사고 발생(8건) 현장 및 설비 가동기간 10년 도래 산지(임야) 1MW 미만 태양광 FIT 설비 140개소 등 설비 안전점검 실시('19.7월) ○ 산업부-에공단-지자체 합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운영 중('19.5월~) ○ 보급사업 참여기업, 발전사업자 등 4만여개 기업에 태풍, 호우 대비 문자발송시스템 구축